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제623호

지면안내

04

사회
플랫폼의 발 아래
찢어내는 과외 교사

06-07

사진공모전
제20회 사진공모전

08-09

사진기획
눈부신 5월,
캠퍼스의 열기를 노래하다

12

기획
상업화된 대학 축제,
사라진 우리들의 '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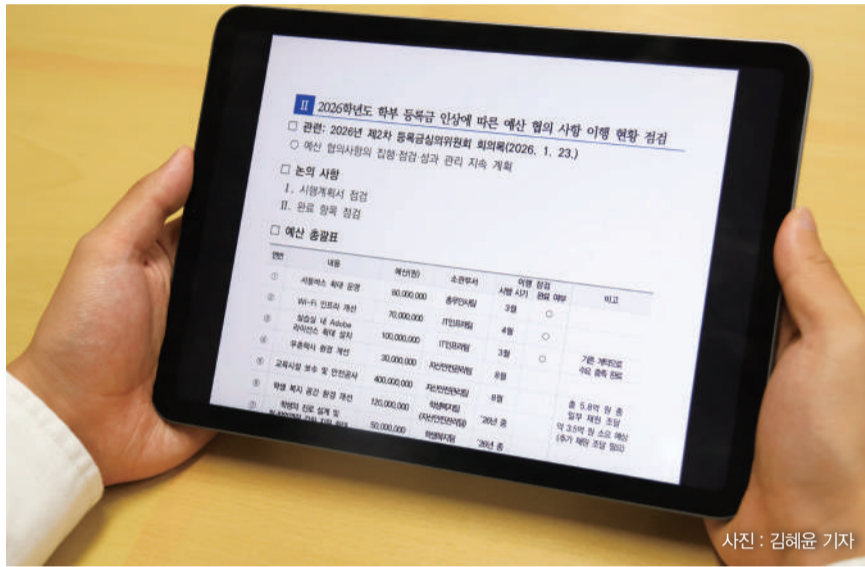
등록금 인상분 사용 계획 공개, 이행 현황은?

지난 5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예산 협의 사항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사항은 지난 1월 열린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등록금 인상 재원을 활용한 학생 복지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협의 사항은 ▲서틀버스 확대 운영 ▲Wi-Fi 인프라 개선 ▲실습실 내 Adobe 라이선스 확대 설치 ▲우촌학사 환경 개선 ▲교육시설 보수 및 안전 공사 ▲학생 복지 공간 환경 개선 ▲학생의 진로 설계 및 취·창업역량 강화 지원 확대 ▲전 재학생이 공평하게 수혜 가능한 장학금 지원 ▲AI LMS 시스템 도입 ▲생성형 AI 기반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이다. 현재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4건, 이행 중 4건, 이행 예정 2건이다. 본부는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행 완료된 사항은 ▲서틀버스 확대 운영 ▲Wi-Fi 인프라 개선 ▲실습실 내 Adobe 라이선스 확대 설치 ▲생성형 AI 기반 학습 플랫폼 구축 등이다. '서틀버스 확대 운영'은 지난 3월 3일 이행을 완료했다. 본교는 해당 사업에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학기 중 서틀버스 1대를 추가 배치하고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속 운행 체계를 구축했다. 우승식(예산관리팀) 팀장은 "기존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쿨버스 운행이 중단됐으나,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Wi-Fi 인프라 개선' 역시 지난 4월 이행 완료됐다. 교내 전체 건물 Wi-Fi의 IP 할당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하고 탐구관과 진리관의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했다. 이를 통해 Wi-Fi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 조치했다. 우 팀장은 "여름방학 중 건물 단위의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금 협의 사항 이행 현황 자료

밝혔다.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실습실 내 Adobe 라이선스 확대 설치'는 지난 3월 이행됐다. 창의관 608호 실습실에 Adobe 라이선스 17대를 추가 설치해 디자인대학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우 팀장은 "타 단과대학 학생도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자유롭게 라이선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기반 학습 플랫폼 구축'은 지난 4월 1일 완료됐다. 본교는 6천만 원의 예산으로 ▲ChatGPT ▲Gemini ▲Claude 등의 생성형 AI를 'HSU AI HUB'로 통해 제공하고 있다. 우 팀장은 "플랫폼 오픈 이후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향후 파일 업로드 기능과 실시간 번역 기능 등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설 보수 및 안전 공사 ▲학생의 진로 설계 및 취·창업역량 강화 지원 확대 ▲전 재학생이 공평하게 수혜 가능한 장학금 지원 ▲AI LMS 시스템 도입 등은 이행 중이다. '교육시설 보수 및 안전 공사'에 포함된 비탈면 안전공사와 창의관 냉난방 설비(GHP) 교체 중 창의관 냉난방 설비 교체는 오는 8월 이행된다. 5억 8천만 원의 예산

이 소요되며 이중 4억 원이 등록금 인상 재원으로 조달됐다. 비탈면 안전공사의 경우 지난 5월 말 창의관 우측 비탈면의 사태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관목 식재 공사를 완료했다. 우 팀장은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를 넘어 창의관 전체의 냉난방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진로 설계 및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확대'는 일부 항목 이행 중이다. 5천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진로취업 명사 Insight' 특강 ▲대동제 ▲취업진로박람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내기세로배움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1학기에 진행된 '진로취업 명사 Insight' 특강은 2학기에도 진행된다. 이외의 항목은 모두 이행 완료됐다. 우 팀장은 "기존의 단순한 행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 재학생이 공평하게 수혜 가능한 장학금 지원'은 일부 시행 중이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교는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교육장학금 II ▲취업역량강화 장학

특별장학금 ▲한성복지장학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장학금 II의 경우 AI·Adobe 구독료 지원으로 이뤄지며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취업역량강화 총장특별장학금은 지난 4월 장학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됐으며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성복지장학금 역시 지난 4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우 팀장은 "올해 처음 이행되는 사업인 만큼 학생 수요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I LMS 시스템 도입'은 총 2억 원 규모로 추진돼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3월 정식 도입된다. 해당 시스템에는 최신 디자인 인터페이스 도입, AI 자동 번역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 팀장은 "기존 LMS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구축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촌학사 환경 개선 ▲학생 복지 공간 환경 개선 등은 이행 예정이다. '우촌학사 환경 개선'은 오는 8월 이행된다. 본교는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숙사 화장실 배수시설 점검과 세면대, 거울, 휴지걸이 등 노후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대학본부는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거주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 팀장은 "방학 중 학생들의 거주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복지 공간 환경 개선'은 2026학년도 2학기 이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IT 공과대학 학생회실을 통합해 학생 간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본교는 당초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2억 3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총 사업비가 약 3억 5천만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 팀장은 "향후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실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오는 2학기 본인인증시스템 개편

26학년도 2학기부터 본교 e-class의 본인인증시스템이 개편된다. 시험 기간 본인 인증을 비활성화하며, 본인 인증 오류가 반복되는 대학원생도 본인 인증이 면제된다. 이는 글로벌원스톱센터 민원서비스 등에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스마트융합교육센터의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현행 본인인증시스템은 ▲생체인증 ▲카카오톡 인증 ▲휴대폰 SMS 인증 ▲Email 인증 등 4가지 방식으로 주 1회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e-class의 대리 출석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이다.

시험기간인 8주·15주·16주 차에 모든 전교생의 본인 인증이 일시 중단된다. e-class 시험 도중 본인 인증 요청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때 따른 조치다. 노상우(스마트융합교육센터) 팀원은 "인증 방식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인증시스템이 영구적으로 면제됐다. 본인 인증 이후 다음 시스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으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우선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노 팀원은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개인 네트워크 문제로 판단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e-class 본인인증시스템 비활성화에 따른 계정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팀원은 "이번 학기 중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마련해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편 이후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인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등굣길 전기자전거 방치, 본부 조치 예정

본교 인근 보행로에 공유 전기자전거(이하 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며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성북구청과 관련 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향후 변동사항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보행로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다. 자전거 대여 업체 측도 민원이 제기될 경우 수거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 조례』에 따르면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도를 침범한 자전거로 통행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노유경(사회과학 2) 학생은 "등교 중 자전거를 옆으로 치우고 지나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문제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문제 상황에 직접적인 관리 권한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대학본부의 의견을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쿠 관계자는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훈(스윙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자전거를 의식 있게 사용하는 선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송사무엘 기자 songsamuel24@naver.com



캠퍼스를 덮친 어둠 지난 18일 교내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불편을 겪었다. 정전은 오전 10시 13분경 발생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긴급 복구 작업으로 오전 11시 15분경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다. 정전으로 인해 전자출결 시스템의 비콘이 작동하지 않아 오전 시간대 강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이마트24' 편의점은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며 물류를 정리하기도 했다. 정전 원인은 한전 측 전력 계통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전력 누출로 추정된다. 대학본부는 향후 정기 점검 등으로 정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윤권(자신안전관리팀) 부장은 "한전과 전력 용량 증설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향후 설비 점검 및 보안을 통해 정전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방중 집중근로 개편된다

하계방학 집중근로 변경 세부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운영 형태	한국장학재단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대학이 참여	대학이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활용해 자체 운영
근로기관 유형	공공기관 · 공공성 높은 기관 중심	기존 공공기관 근로 유지 중소 · 중견기업 등 기업 현장 비중 확대
선정 관점	공공기관 위주 TO 확보 및 배정	기업 현장 중심 근로지 발굴
학생 경험	행정 보조, 사무 지원	전공 · 진로와 연계 가능한 기업 실무 보조, 프로젝트

본교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이하 집중근로)'이 개편된다. 기존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던 공공기관 위주의 집중근로에서 벗어나, 방학 기간에는 본교가 자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등 근로기관을 활용해 확대·운영한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24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개편 사항은 2026학년도 하계 방중부터 적용된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본교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용보증기금 추천 기관의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중집(학생복지팀) 팀장은 "2026학년도 동계방학이나 그 이후의 학기 적용 여부는 내부 검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고 설명했다. 근로기관 구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한 근로장학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단순 행정 업무를 넘어 실질적인 직무·일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는다. 조 팀장은 "기존 공공기관 근로를 유지하면서도 신용보증기금 추천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기업 현장경험 강화형 근로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기존 집중근로 선발 기준과 동일하다.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1.88 이상이며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선정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유형 신청자만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휴학생, 수료생,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하다. 조 팀장은 "행정 보조 위주

근로보다 기업 현장의 직무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근로 종료 후 참여 학생은 자기주도 일 경험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50pt가 지급된다. 또한 결과보고서가 우수 결과보고서로 선발될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조 팀장은 "학생들이 방중에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실제 기업 업무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실무 및 진로 관련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제1회 AX 프런티어 챌린지 성료

'제1회 한성 AX 프런티어 챌린지 시상식'이 지난 29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AX 프런티어 챌린지는 학내 구성원이 본교의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대회다. 현장에서 교육·연구·행정 사례를 발굴해 대학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정보처에서 처음 주최됐다.

심사는 본교 지존(AI응용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내외부 심사위원 12명이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완성도 ▲기능 적합성 ▲현업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AI 활용 수준 등이다. 지 교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며 "심사하며 조직에서 큰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재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에서는 개발에 성공해 서비스를 제시한 25개 팀 중 11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1팀) ▲최우수상(2팀) ▲우수상(4팀) ▲장려상(4팀)에게 각각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대상을 받은 팀 'Admitdation(어드미티에이션)'의 형유림(융합보안 4) 학생은 "외국인 학생의 입학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직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외국인 입학 면접 심사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돼 행정과정의 효율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화정 디지털총무처장은 "한성 AX 프런티어 챌린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학내 구성원 모두가 경영 혁신에 참여하는 열린 한성의 출발점"이라며 "훌륭한 출품작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현 기자 soohyuniog@gmail.com



남문 교체 기념하는 준공식 개최 본교 의화정 뒤편 낙산성곽길로 이어지는 남문의 준공식이 지난 15일 남문 앞에서 열렸다. 기존 남문은 노후화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체가 결정됐다. 공사는 지난 2월 2일 시작돼 27일 마쳤다. 이창원 총장 외 44명이 참여한 준공식은 ▲개식사 ▲경과보고 ▲기념사 ▲커팅식 ▲단체촬영 및 풍선날리기 ▲폐식사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 이 총장은 "이번 남문 준공을 계기로 낙산의 정기가 한성으로 모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기은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맞춤형 전공 선택 길잡이, 트랙설명회 진행



▲부스에서 두피 촬영 체험 중인 학생

2026학년도 '전공트랙 진로 설명회'(이하 트랙설명회)가 지난달 13일 낙산관에서 열렸다. 트랙설명회는 트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트랙설명회는 단과대학별 트랙·학과(부) 등 총 50개 부스가 운영됐다. 참여 학생은 부스에서 해당 트랙 소속 교수 및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배들의 실습 결과물을 체험하는 등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교과 포인트 지급과 경품 추첨도 이뤄졌다. 1개 부스

방문 시 비교과 포인트 5pt가 지급됐으며 1인당 최대 20pt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4개 이상의 부스를 방문한 학생 중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E-Gift Card 1만 원권'이 증정됐다.

행사에 참여한 박지훈(IT 1) 학생은 "각 트랙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학문화콘텐츠학과 부스를 운영한 강기연(문콘 4) 학생은 "트랙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 분야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학생 개인의 진로와 관심사에 맞춰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24kbird@naver.com

한성학원 80주년 기념 제막식 진행



▲한성학원 설립자를 기리는 기념비

'설립자 기념비 제막식'이 지난 15일 의화정에서 진행됐다. 이는 한성학원 설립 8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한성학원 설립자 김의형 박사, 이희순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동후(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총장, 홍영화(한성여자고등학교) 교장, 남궁미경(한성여자중학교) 교장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개식사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비 제막 ▲설립자 가족인사 ▲기념촬영 ▲기념식수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우촌 김의형 박사가 학교를 설립할 당시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던 장소인 의화정 앞에 기념비가 설립됐다.

문 이사장은 "제막식을 계기로 한성학원의 80년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한성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은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한성대신문

마음속에 머물던 생각, 글로 남겨보세요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자유 주제

분량 제목 제외, 공백 포함 1,100자

혜택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상시 모집

접수방법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해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문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갈 길 먼 학내 배리어프리

〈편집자주〉

본교는 2018년도부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시행하고 있다. 배리어프리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내 곳곳에는 여전히 물리·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어 장애학생들은 이동부터 학습, 식사, 안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아 입학 단계에서 장애학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지원 역시 신청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교가 더욱 포용적인 학습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리어프리 전문가와 함께 학내를 둘러보며 이동·학습·식사·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실태를 점검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김혜윤 기자 purplep.pea06@gmail.com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사진: 김혜윤 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물적, 인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교 역시 이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학금 지급, 진로 및 취업 지원, 장애학생 상담, 생활관 우선 배정 등의 제도를 제공 중이다. 현재 본교에는 4명의 학부생과 교직원 1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미등록된 구성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구현(장애학생지원센터) 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원활한 학습 수행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지원과 함께 본교는 발전 계획을 수립해 ▲선발 및 교수·학습영역 개선 ▲시설·설비 영역 개선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등 3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현과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정 팀원은 "배리어프리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이후에도 환경을 지속 개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선발 및 교수·학습영역 개선 과제는 ▲장애학생 전형 도입 검토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물적·인적지원 보완 ▲장애바로알기 캠페인 시행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장애학생 전형 도입 검토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진행 완료됐다. 장애학생 전형은 도입하지 않고 기회균형 전형으로 대체 운영한다. 맞춤형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수강신청·학사지도 등을 지원하고 보조기구 지원도 보완했다. 또한 매년 장애 인식개선교육 및 장애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설·설비 영역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 시설·설비 개선'과 '무장애화캠퍼스 구축' 등이 마련됐다. 학교 시설·설비 개선을 위해 신고가 이뤄지는 대로 학내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무장애화캠퍼스 구축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본교 대표 홈페이지에 '장애인 보행로 캠퍼스맵(이하 캠퍼스맵)'을 업로드하고 학생식당에 장애학생 우선 배려석을 지정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지원체제 내실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인력 보완 등이 이뤄졌다.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서울동북보조기기센터, 성북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등과 같은 지역 기관과 협업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관련 전문가로 배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전문 인력을 보완했다.

장애학생 지원체제 공백 우려

본교는 「장애학생지원 5개년 중장기 발

전계획」을 바탕으로 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본교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은 기회균형 전형 등 다른 전형을 통해 입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입학 단계에서 장애학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이 직접 장애 사실을 신고해야만 지원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해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본교는 기회균형 전형에 장애인연급 수급자 등이 포함돼 있어 장애학생 역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미정(입학관리팀) 부팀장은 "교육부의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 발표 이후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장애학생 또한 지원이 가능해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적 이동권 제약 여전히

점검 결과 장애학생은 등굣길부터 학내 이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동 접근성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약 4.75도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법령에서 지정한 기울기보다 경사가 가파를 경우 휠체어가 기울어져 전도될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교의 주요 통학로인 삼선교로16길의 경사를 측정한 결과 8도가량으로 확인됐다. 본교 셔틀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기도 않아 이용이 특히 제한적이다. 배리어프리 점검을 진행한 배운호(한국 접근성·UD정책 연구소) 대표는 "삼선교로16길과 학내 보행로는 좌우로 기울어진 횡경사 구간"이라며 "이 경우 휠체어가 넘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내 보행 환경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본교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캠퍼스맵을 공개하고 있으나 캠퍼스맵에 보행로로 표기된 장소조차 휠체어를 통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캠퍼스맵에 표시된 공학관으로 가는 오르막길은 경사로의 최대 기울기보다 가파른 10도였다. 또한 캠퍼스맵에 기재된 공학관 B동 1층 엘리베이터 인근 통행로에 약 6cm 높이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했다.

대학본부는 원활한 이동을 위해 최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교를 위한 저상스쿨버스의 경



사진: 임지민 기자

우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학내 경사로는 연구관과 공학관의 경우 지형적 원인으로 인해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엘리베이터 단차 역시 방화유리문 프레임의 원활한 개폐를 위해 엘리베이터 앞 턱을 2cm 이상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 바 없으나 향후 조사·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도영(자산관리팀) 부팀장은 "각 부서와의 프레임 턱의 경사판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 부문 사각지대도 남아있어

장애학생의 자율적인 식사 주문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본교 학생식당은 대부분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음식을 수령하는 배식구 역시 1.13m로 확인됐다. 상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점수대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배 대표는 "식사를 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간단한 과정조차도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용 무인 키오스크 도입과 관련해서는 식당 내 상주 직원이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설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부팀장은 "현재 학생 식당에는 상주 영양사가 이용 안내와 주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난 상황 고려한 대피 방안 부재

장애학생의 화장실 이용 환경에도 안전상 문제가 확인됐다. 휠체어 이용자가 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몸을 지지할 수 있도



사진: 임지민 기자

록 돕는 안전 손잡이는 변기 인근에 설치돼야 실효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안전 손잡이가 세면대 주변에 설치돼 있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창의관 ▲낙산관 ▲미래관 등의 장애인 화장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대표는 "법령에서는 설치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본교의 비상 대피로는 계단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동에 제약이 있는 학생들은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배 대표는 "평상시에는 도우미 학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재난이나 대피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며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한 방식은 비상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학본부는 관련 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이동이 용이한 위치로 강의실을 변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외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



사진: 황수민 기자

- 1 스쿨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배 대표
- 2 철 구조물이 세면대 이용을 가로막는다.
- 3 적정 경사도를 초과하는 공학관 진입로
- 4 6cm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넘어가지 못한다.

완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중집(장애학생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장애학생에게는 도우미 학생을 배정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시 조력자 역할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실제 이용자의 이동 경험과 생활 동선을 반영한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조 부센터장은 "장애학생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협력해 개선에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플랫폼의 발 아래

찢찢매는 과외 교사

방학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이른바 ‘꿀알바’를 찾는 데 한창이다. 그중 과외는 비교적 높은 시급으로 인해 꾸준한 인기를 자랑한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등장한 김과외, 설택, 판다 등의 과외 중개 플랫폼(이하 과외 플랫폼)은 과외 교사와 과외 학생을 연결해 준다.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며 ‘악덕 중개업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외 플랫폼은 대학생 과외 교사와 과외 학생이 기재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과외 중개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외비 책정, 과외 학생·과외 교사 연결, 과외비 수령·지급 등을 중개하며, 과외 교사와 학생 간 ‘매칭’이 성사되면 과외비에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과외 플랫폼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외 교사와 과외 학생을 손쉽게 연결해 주는 편의성과 비대면 수업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이용자가 늘어났다. 실제로 김과외는 2026년 기준 가입자 수가 과외 교사 약 70만 명, 학생·학부모 회원 약 170만 명으로 조합 240만 명에 달했다. 설택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112% 성장했다. 안정화(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커지면서 과외 플랫폼도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과외 플랫폼은 급성장했으나 이면에선 과외 플랫폼에 공개된 과외 교사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외 교사가 과외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출신 고등학교, 학력, 나이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과외 교사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 20대 남성이 과외 플랫폼에서 과외 학생을 사칭 후 대학생 과외 교사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현 학생은 “서울권 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이 한 곳뿐이라 출신 고등학교와 학과가 기재되는 것만으로도 신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동희(노무법인 하이랩) 대표노무사는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이 예견 가능하나 이를 막을 실질적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과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과외 플랫폼이 과외 성사 후 과외비의 25%부터 절반 이상의 수수료를 매달 징수하고 있으며, 과외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건당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한 달 과외 수익이 40만 원일 경우 최

소 1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과 학생은 “판다에서 과외 교사로 활동할 당시 과외비의 약 5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며 “당시 과외 시급이 약 4만 원이었으니 약 2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과외 플랫폼 측에서 과외 교사들의 채팅을 모니터링하며 과도하게 통제하는 문제도 확인된다. 과외 플랫폼 내 채팅 시스템을 통해 과외 교사와 과외 학생 간 대화를 모두 확인하고, 매칭 성사 등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사실상 감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견해다. 주요 과외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르면 과외 플랫폼 외부에서 연락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프로필에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형 학생은 “사용 중인 과외 플랫폼은 과외 교사와 과외 학생이 나눈 채팅을 감시하기에 과외 성사 전 전화번호 교환 등은 사실상 눈치 보이는 구조”라며 “김과외의 경우 과외 교사와 과외 학부모에게 별도의 연락으로 과외 성사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말했다.

과외 교사들이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몰아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과외 플랫폼이 인터넷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상황이다. 이에 직업소개사업이라면 적용됐을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리·감독 체계 등의 책임에서 비껴나 있다. 박은(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법률상 허점을 이용해 과외 플랫폼이 스스로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다”며 “이는 대부분이 대학생인 과외 교사에 대한 보호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적 운영에서 기인한다. 과외 교사에게는 사진, 신분증, 학생증, 학력 등 상세 신원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만 요구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학생 과외 교사가 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의뢰인의 호출에 일방적으로 노출돼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피력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의 원인으로 과외 플랫폼이 징수하는 수수료 상한선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꼽힌다. 2013년과 2018년 과외 교사들이 수익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외 플랫폼의 과도한 사찰 문제는 과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이용약관이 광범위한 수집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외 플랫폼은 채팅 내용과 서비스 이용 기록 등까지 개별 과외 플랫폼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를 확보한다. 이후 이용자 간 거래 성사 여부나 각 과외 플랫폼을 벗어난 과외 거래 가능성을 수집해 직접 개입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플랫폼에서 과외 교사는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속한다”며 “결국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과외 플랫폼의 법적 책임 회피 문제는 대학생 과외 교사를 전제로 한 별도의 규제가 부재한 점과 맞닿아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대학생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학생의 일시·부수적 과외 활동까지 정부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외 플랫폼이 수십만 명의 대학생 과외 교사를 중개하며 사실상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강민형(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교육 억제에 맞춰져 있어 대학생 과외 교사의 노동권 보호 문제는 경시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역시 과외 플랫폼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과외 플랫폼이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고용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다. 그럼에도 과외 플랫폼을 단순 통신판매업 범주 안에서만 수용해 적극적인 규율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과외 교사가 계약 체결 및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외 플랫폼에 어느 정도 종속돼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과외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학교·학과·성별·전화번호 등 세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고, 과외 플랫폼이 학력·경력·신분을 검증했다는 사실만 표시한다. 이후 수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실명과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양측에 동시 공개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최근 여러 기업이 양방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방적 정보 노출을 보완하는 추세”라며 “택시 서비스 플랫폼인 우버나 카카오택시 등은 이미 해당 방식을 채택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외 교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논의의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외 플랫폼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과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배 노무사는 “단순히 입법에 기대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외 교사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사찰 문제를 막기 위해 과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외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채팅 내용과 활동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지 못하도록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다. 또한 과외 플랫폼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식이다. 배 노무사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의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외 플랫폼에 속한 과외 교사의 지위 보장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업 교습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과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단순히 대학생 등록 대상에 강제 편입시키기보다 과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분쟁조정, 표준 수수료, 자격 보호 등 최소 보호 규범을 적용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과외 플랫폼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난다. 과외 플랫폼이 사실상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직업 소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사업 유형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과외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에 비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시장 교섭력이 취약한 과외 교사에게도 공정한 과외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외 플랫폼에서 드러난 문제를 플랫폼 노동 전반의 과제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외 교사는 법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외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운영 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현행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만들 다섯 번째 서울의 미래를 묻다

지난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국민의힘)이 제41대 서울특별시시장으로 선출됐다. 오 시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 까지다.

이번 선거로 오 시장은 5번째 서울특별시시장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서울이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하며, ▲경제·산업 ▲도시·교통 인프라 ▲주거 ▲교육·청년 ▲노동 ▲문화·예술 등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선거 전 진행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연합취재를 통해 오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사업비 조달 및 추진 방안이 무엇인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단절된 도시 공간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지하화 등 '입체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 공간에 공원·주거·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사업비는 세금만이 아닌 민간 투자와 복합개발 이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에 철도와 도로시설에 투자되던 예산을 대체투자해 재원을 조달하겠다.

Q. 서울 지하철 혼잡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는 문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현재 서울 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시간대에 특정 구간에 혼잡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는 철도망 자체의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면목선과 강북횡단선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직결된 노선들은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또한 기후동행카드를 K-패스와 결합해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재편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울구간에 기후동행패스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Q. 향후 서울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

서울에는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아 재개발, 재건축을 얼마나 빠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존에 행정 절차를 압축해 진행하던 '신속통합기획'을 발전시켜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하겠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Q. 월세와 관리비, 전세사기 등 청년에게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 주거 고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대학 입학부터 사회초년생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3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것이다. 공유주택과 대학 기숙사도 추가 공급해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전세사기 위험 완화를 위해 전세계약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제도도 확대해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Q. 생성형 AI 보편화로 기업의 채용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현행 청년 직무 교육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방안이 궁금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단순 취업만이 아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 변화 속도다. 이에 맞춰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치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을 AI 특화산업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교육 과정을 전체에 창업 실무와 멘토링을 결합해 AI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도시철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선거캠프

1 경제·산업 부문
AI·바이오·로봇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조 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2 도시·교통 인프라 부문
강북횡단·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추진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및 환승체계 개선
기후동행패스 확대·GTX 연계

3 주거 부문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서울형 대학캠퍼스 기숙사 공급 확대
디딤돌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2.0 확대
청년 주거사다리 '더드림집+' 7.4만 호 공급
주택진흥자금 투입 확대

4 교육·청년 부문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미래산업 중심 직업훈련
서울권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주택·기숙사 공급 확대
심리상담 바꾸어 지원 확대

5 노동 부문
약자동행 공공일자리 연 26만 개 공급
첨단산업 등 일자리 연 15만 개 창출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6 문화·예술 부문
5대 권역별 차세대 문화거점 건립
관광 과밀 지역 서울 전역으로 분산
대규모 문화행사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노동글로벌 예술섬, 남산 곤돌라 등 설치

또한 청년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50만 명에게 AI 이용 계정과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 영커리언스'를 통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인턴십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겠다.

Q.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공약을 언급했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휴게 공간을 확대해 최소한의 노동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야 노동자를 위해 안심 귀가 지원 및 건강검진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Q. 장애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단순히 장애인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실질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공공 데이터 관리나 AI 학습 데이터 구축 등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도 미래 산업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민간 기업과도 협력해 안정적 고용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내세웠다. 이는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의 관광 산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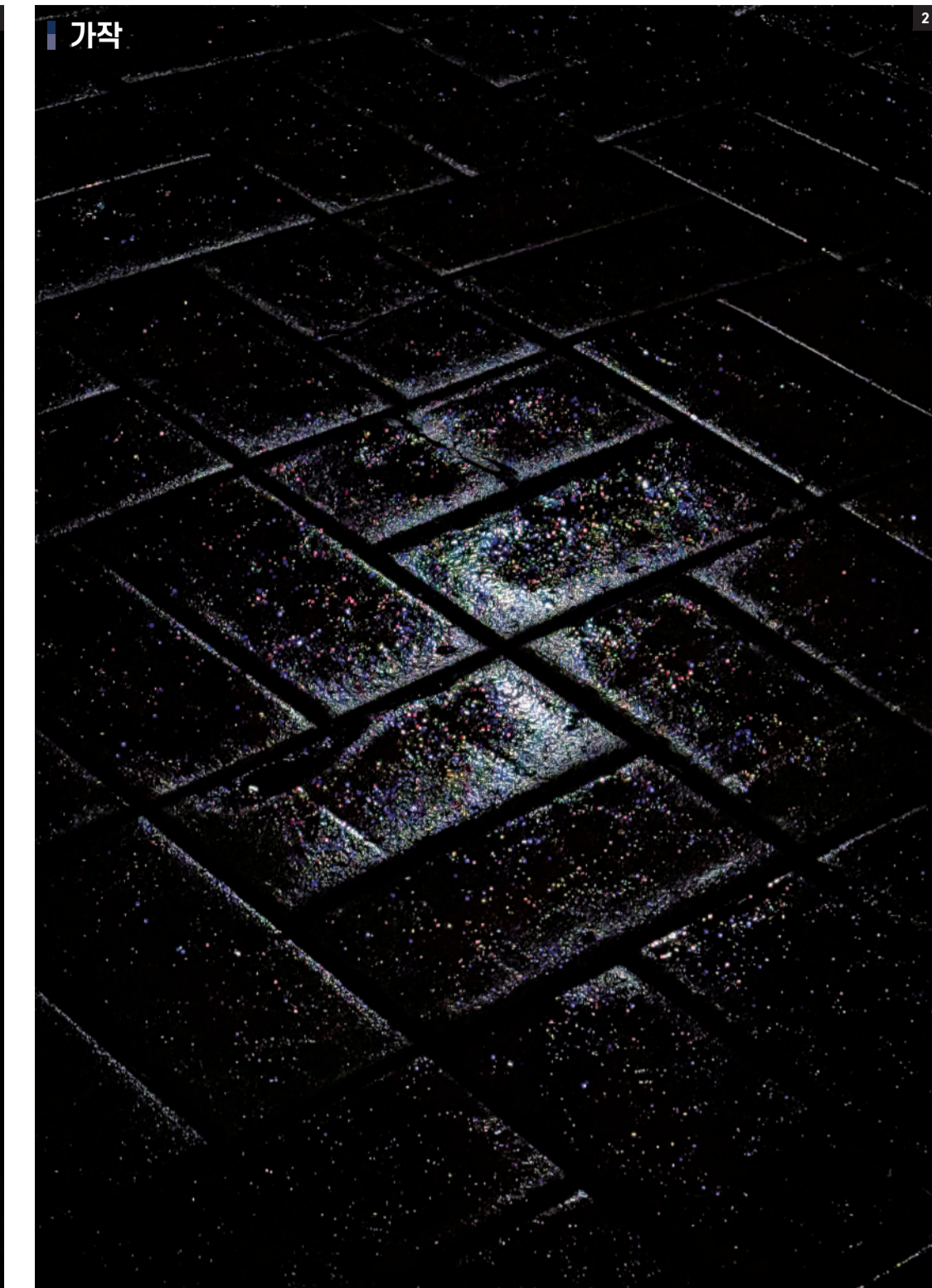
서울 관광의 목표는 '관광객만 즐거운 도시'가 아닌, 시민이 살기 좋기 때문에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현재 서울 관광은 명동이나 광화문, 성수 등 특정 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관광 동선을 서울 전역으로 분산시켜 관광이 특정 지역 주민의 불편이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

Q. 서울특별시시장에 당선됐다. 앞으로의 각오는 무엇인가.

현재 서울은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 주요 도시 평가에서도 서울의 경쟁력과 위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기후동행카드나 서울권과 같은 정책들도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을 단순히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우수작



가작

제20회 사진공모전

심사평



심사위원 **여상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교수)

약력

- 여상현 스튜디오 대표심장
-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겸임교수(현)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외래교수(전)
-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과 초빙교수(전)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패션예술학부 외래교수(전)
- 서울모드패션전문학교 패션예술학부 외래교수(전)
- 2020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사진부문 심사위원
- 2018 인천건축문화제 사진대전 심사위원

빛이 머무는 순간, 사진이 말하는 이야기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대학생들의 시선이 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완성도와 감각적인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들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특징은 '빛과 어둠'을 단순한 노출의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상적인 장면의 기록을 넘어, 사소한 일상과 익숙한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정서를 발견하려는 태도가 인상 깊게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출품작들은 단순히 '잘 찍은 사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과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사진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났으며, 작품마다 서로 다른 감정과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빛을 다루는 감각, 프레임 안에서 여백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인상 깊습니다.

최우수 작품 <열리는 중>은 일상의 매우 사적인 공간을 통해 '빛과 시간' 그리고 '정서'를 섬세하게 포착한 사진입니다. 어두운 실내와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가의 빛 사이에서 형성되는 미묘한 긴장감을 관람자로 하여금 사진 속 공간을 오래 응시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사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에 남겨진 감정과 기억의 흔적까지 화면 안에 담아낸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유와 감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수작이라고 판단했으며, 빛과 공간을 해석하는 뛰어난 사진, 절제된 표현력, 그리고 깊은 정서적 울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의자, 창틀과 같은 화면 속 사물들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

만, 오히려 그 불완전한 정보가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침묵의 힘'입니다. 화려한 장면이나 강한 메시지를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보는 이의 감정을 천천히 끌어당기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현대 사진이 쉽게 소비되는 이미지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이 작품은 느린 호흡으로 공간과 감정을 응시하게 만드는 사진의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둠 속 빛줄에 쫓은 바다와 보도블록을 포착한 <또 다른 우주>은 익숙한 일상의 공간을 전혀 다른 감각으로 환기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강한 명암 대비와 빛의 반사를 활용해 평범한 도시의 한 장면을 마치 심연의 우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보도블록 주변으로 번지는 빛의 질감이 흩날리는 은하를 연상시키며, 관람자로 하여금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게 합니다. 일상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게 전달되며, 절제된 색감과 구도가 작품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숨>은 차가운 공기과 따스한 수온이 만나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의 호흡을 시각화한 압도적인 회화미를 갖습니다. 짙은 어둠에 잠긴 배경과 빛을 받아 하얗게 일렁이는 물안개의 강렬한 명암 대비는 프레임 전체에 신비롭고 목시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습니다.

<엄격함의 틈>은 대지와 균형이 지배하는 수직, 수평의 프레임 속에서 삶의 생생한 찰나를 길어 올려 화려한 장식과 규칙적인 차양, 반복되는 로고가 만들어 내는 화면은 제목 그대로 어떠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듯한 '엄격함'을 드러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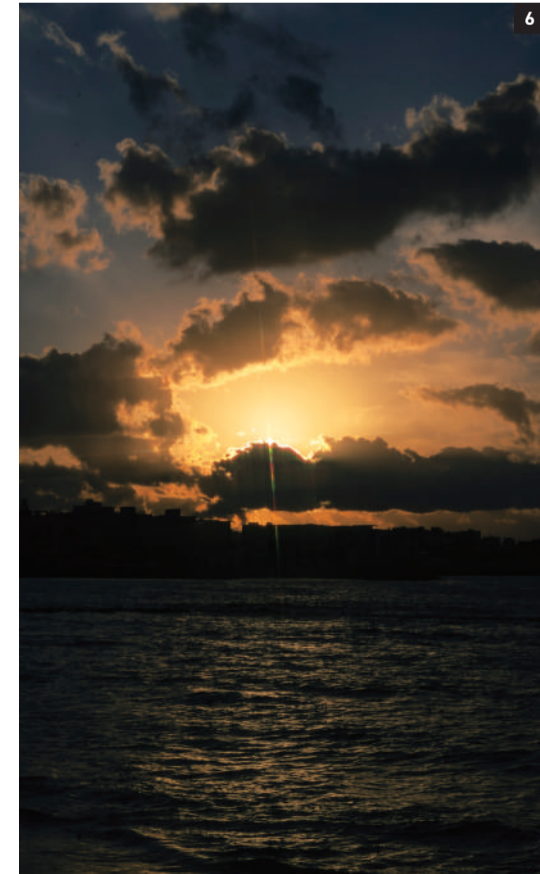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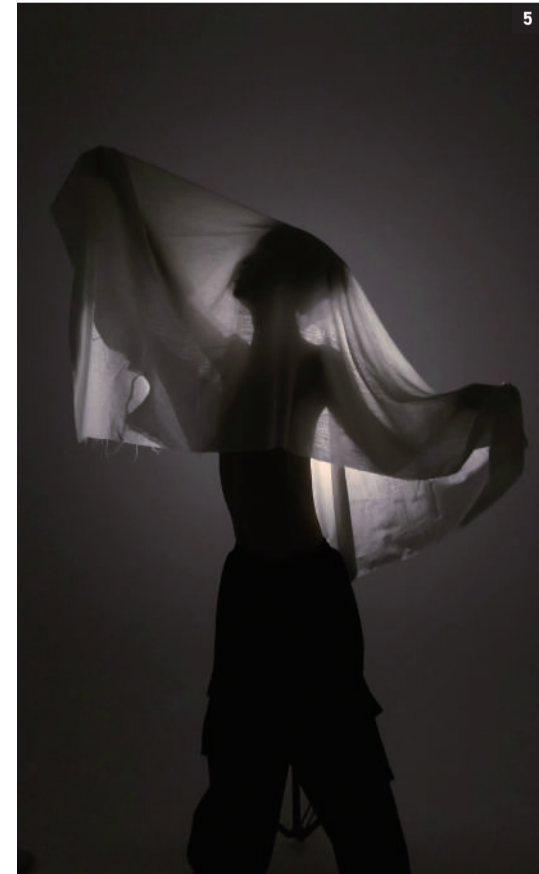
<그림에도>는 통제된 스튜디오 조명과 인체의 곡

선, 그리고 천(布)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 고뇌와 이를 극복하려는 내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인물의 배후에서 흘러나오는 역광은 천을 들어 올리는 역동적인 인물의 손짓과 단단하게 버티고 선 실루엣은 자신을 예리한 한계와 어둠을 견어내고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변합니다.

<수평선 위의 여명>은 짙은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통해 자연이 지닌 숭고한 순간을 인상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어두운 구름과 그사이를 뚫고 퍼져 나오는 빛의 대비가 긴장감과 희망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공간감과 서정성을 형성합니다.

<전해지지 못한 동심>은 낮고 거친 도시의 풍경 속에 홀로 놓인 작은 오리 인형을 통해 순수함과 고독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붉게 녹슨 철제함과 회색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은 시간의 흔적과 삭막한 현실을 상징하며, 그 위에 노란 오리 인형은 잊힌 동심의 존재를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단순한 기술 경연의 자리를 넘어, 오늘날 대학생들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출품작들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보다 자신만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일상에서 발견한 미세한 감각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빛과 그림자, 공간과 여백, 침묵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감정을 전달하려는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시도들이 지속돼, 한국 사진예술이 더욱 폭넓고 풍부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1 열리는 중 이승이(서양화 4)

실내와 외부가 맞닿는 창을 중심으로, 빛이 서서히 공간 안으로 유입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어두운 실내와 대비되는 외부의 빛은 커튼과 유리를 통과하며 내부로 스며들고, 그 흐름을 따라 공간의 일부가 드러난다. 빛은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오며 사물의 윤곽을 부분적으로 밝히고, 나머지 영역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다. 완전히 밝아진 이후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이미, 열리고 있는 중이다.

2 또 다른 우주 백찬열(컴공 3)

어두운 밤, 비에 젖은 보도블록 위로 여러 방향의 빛들이 번져 나가며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졌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사각형 타일 사이로 고인 물과 작은 물방울들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는 마치 광활한 우주에 흩어진 별들을 떠올리게 한다. 현실의 거리 위에 존재하지만, 시선을 낮추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풍경이 펼쳐진다.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 보도블록 위의 작은 반짝임들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우주를 담담히 드러내고 있다.

3 아쉬운 작품들

3 숨 안송현(매선 3)
짙은 어둠과 고요한 수면, 그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호수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 엄격함의 틈 공지현(컴공 4)
명품 부티크의 거리, 검은 정장의 보안요원들, 체계의 경계이자 권위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순간, 엄격함의 '틈'이 드러난다. 화려한 쇼윈도 앞에서도 피로한 노동자일 수 있다는 것.

5 그림에도 윤지현(문예 2)
어둠 속에서 빛을 등진 인물이 천을 펼쳐 올린다. 역광에 의해 실루엣으로만 존재하는 신체와 빛을 머금어 반투명하게 떠오르는 천이 서로 어우러진다.

6 수평선 위의 여명 염태규(사회과학 4)
검게 물든 바다와 짙은 구름 사이로, 태양은 기어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찬란한 빛기를 뿜어낸다.

7 전해지지 못한 동심 차성익(컴공 4)
길가의 낡은 우편함 위에 홀로 놓인 러버덕은 마치 '어른스러움'이라는 우표를 붙이지 못해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남겨진 동심의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눈부신 5월, 캠퍼스의 열기를 노래하다

유난히 뜨거웠던 3일간의 대동제가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첫날부터 잔디광장은 동아리 부스, 체험행사를 즐기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해가 저문 뒤에는 '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한 학생들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잔디광장에 모여 음식을 즐기고 사진을 남기며 영화제와 함께 초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2일차에는 'brillante'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낙산가요제'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끼를 뽐냈다. 이후 '4호선마이크'와 'TRiAX'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어 청량한 초여름 감성을 담은 '불빨간사춘기'와 통통 튀는 '최예나'의 무대로 마무리됐다. 이날부터 각 트랙·학과(부)가 운영한 주점과 부스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는 'NOD'의 화려한 무대에 이어 '왕산악'과 '들불'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잔디광장을 매웠다. 밝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뉴비트', 무대를 장악한 '참모', 상큼한 매력을 보여준 '키키'의 무대로 3일간의 축제가 막을 내렸다. 청춘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3일,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보자.

유가은 기자 infantcare_silver@naver.com



사진: 황수민 기자

- 1 베트남 음식을 소개하는 베트남 음식 부스 운영진
- 2 학생이 'CCC' 부스에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 3 대동제 1일차, '버팔로' 부스에서 버치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
- 4 아장을 찾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한다.
- 5 회화과 부스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받고 있는 학생
- 6 학생이 '피닉스' 부스에서 사격 게임에 참여한다.



사진: 김서현 기자



사진: 김가린 기자



사진: 김산 기자



사진: 김산 기자



사진: 김산 기자



- 7 축인음악 동아리 'TRiAX' 소속 학생이 관객 앞에서 랩을 이어가고 있다.
- 8 밴드 '복권판매장'의 유선정 참가자가 노래를 선보인다.
- 9 중앙노래패 '들불'이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중환무진한다.
- 10 공연을 즐기려는 학생들로 잔디광장이 북적인다.

사진: 임지민 기자

사진: 김산 기자

하늘을 꿰뚫어 내일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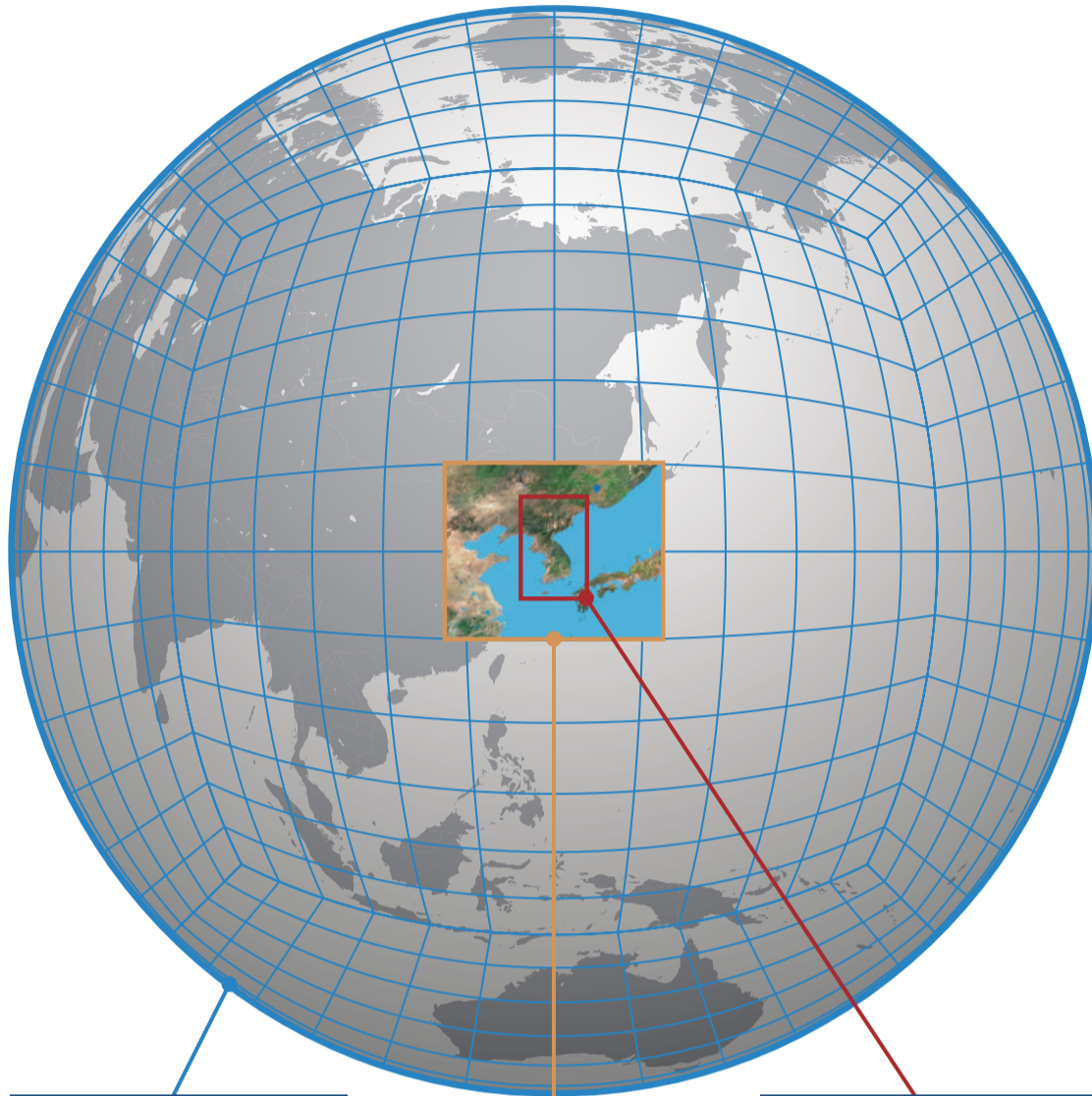
무더위가 이어지다가도 폭우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 속 일기에 보 확인은 필수다. 이러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기상청은 '수치예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수치예보시스템은 현재 대기의 상태를 물리·수학적으로 계산해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첨단 예보 체계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수치예보모델을 운영하며 관련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상무(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한국의 수치예보시스템의 경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형, 기후에 최적화돼 있어 대기물리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치예보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으로 물처럼 흐르는 유체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만 구름 형태 등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기압·온도·습도 차이가 발생하며, 대기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과 수증기를 이동시킨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 구름, 비와 같은 기상현상은 모두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미래 대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먼저 '기상레이더'와 '기상위성'과 같은 관측기기를 활용해 현재 대기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다. 이 중 기상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한 뒤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전파반사' 원리를 이용한다. 기상레이더는 전파를 수백 km 범위까지 발사할 수 있는데, 이때 전파는 공기 중 기체의 영향을 크게 방해받지 않아 멀리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빗방울이나 눈송이와 같은 강수 입자에는 부딪혀 반사되는 성질을 갖는다. 때문에 전파가 빨리 돌아오면 가까운 곳에서, 늦게 돌아오면 먼 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박상훈(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는 "전파가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대기 중 빗방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반사 신호의 세기를 통해 물방울의 크기와 밀도 등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위성은 주로 지구에서 반사·방출되는 지구복사에너지를 관측하는 '수동 관측 방식'을 사용한다. 지구복사에너지는 지구에서 방출되거나 반사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기상위성은 지구복사에너지를 통해 낮에는 태양 빛이 구름과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정도를, 밤에는 지표가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에서 측정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수증기 등의 밀도를 수집해 강수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김대휘(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는 "기상위성은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듯 다양한 파장의 복사에너지를 스캔해 대기 상태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가시광선, 적외선, 수증기 등 여러 파장으로 구분해 분석되는데, 파장에 따라 대기를 통과하는 정도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시광선은 구름과 지표의 형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적외선은



전지구 예보모델
예보시간 : 12일
범위 : 12km 91층

국지 예보모델
예보시간 : 48시간
범위 : 1.5km 70층

초단기 예보모델
예보시간 : 12~36시간
범위 : 5km 22~40층

온도 분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특정 적외선은 대기 중 수증기량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유영희(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는 "수증기는 특정 적외선 파장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성질이 있다"며 "위성은 이를 통해 대기 중 수증기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측기기를 통해 수집된 기상자료는 오차를 보정한 뒤 컴퓨터에 구현되는 과정이 이어진다. 대기를 여러 층과 격자로 나눠 기상정보를 입력하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제 대기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것이다. 유 교수는 "격자간 온도와 기압 차이를 비교하면 공기의 이동 방향과 에너지 전달 과정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수치예보시스템은 예측 범위에 따라 크게 ▲전지구 예보모델 ▲국지 예보모델 ▲초단기 예보모델 등으로 구분된다. 전지구 예보모델은 지구 전체를, 국지 예보모델은 특정 국가나 권역을, 초단기 예보모델은 특정 국가의 급속히 발달하는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대기 변화를 계산한다. 이후 격자간 온도와 기압 차이를 계산해 공기의 이동 방향과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예보모델들은 범위 뿐만 아니라 예보시간과 정확도 등에도 차이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수치예보시스템은 현재 대기의 상태에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계산하고 이를 시간에 따라 누적해 미래의 상태를 추정한다. 바로 '시간 적분'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매 순간의 기온·기압·풍속 등의 시간 변화율을 구한 뒤, 여기에 수십 초 단위의 짧은 시간 간격을 곱해 바로 다음 단계의 미래를 계산한다. 예를 들

어 현재 기온이 20°C이고 방정식이 도출한 변화율이 1초당 0.01°C 상승이라면, 10초 뒤의 기온은 20.1°C로 갱신된다. 박 교수는 "전지구 예보모델의 경우 약 10~15분 단위로 시간을 적분하고 국지 예보모델은 약 10초 간격으로 연쇄적인 계산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상 예측은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만을 쫓지 않는다. 대기 속 수증기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연산도 뒤따른다. 시스템은 각 격자를 드나드는 수증기의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어떤 조건에서 그 수증기가 비로 바뀌는지 추적한다. 이상무 교수는 "수치예보시스템은 연속적인 대기의 흐름을 조각으로 나눠 수증기를 추적한다"고 덧붙였다.

이때 공기의 열역학적 변화 추적이 이뤄진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주변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 덩어리가 사방으로 부피를 넓히는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이후 공기는 외부와 열을 교환할 틈도 없이 급격히 팽창하며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 열에너지를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공기 자체의 온도가 급격히 하강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물 분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져 기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므로, 최대 수증기량도 점차 감소한다. 결국 차가워진 공기가 수증기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초과 수증기량을 예상 강수량으로 도출한다. 이상무 교수는 "단열 팽창 과정을 통해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돼 수증기가 물방

울로 변해 강한 강수를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생산된 예측 결과는 초기 값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해 계산된다. 초기값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치예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예보관이 기상관측자료, 지역적 특성,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대기 상태를 진단한다. 유 교수는 "대기는 작은 변수가 큰 변화로 이어지는 혼돈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초기값의 작은 오차가 며칠 뒤에는 전혀 다른 예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기의 움직임과 비가 오는 원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수치예보시스템으로 날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구의 대기는 여러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하기 때문에 여전히 완벽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기의 움직임과 비가 오는 원리가 현재로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아직 불완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I는 방대한 기상자료를 학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차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 결과를 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 교수는 "앞으로는 수치모델과 AI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파 : 전기가 흐름 때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는 파동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월드컵 온다, 트리온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특징을 담은 축구공을 새롭게 제작한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제작된 공인구 '트리온다(Trionda)'는 비행 안정성, 판정 정확성 등을 향상시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과학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 받는다. 어쩌서 단순한 축구공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보자.

트리온다에는 ▲4패널 구조 ▲디보싱 패턴 ▲IMU 모션 센서 칩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됐다. 이중 4패널 구조는 공을 완전한 구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한 제작 방식이다. 패널은 축구공의 겉면을 이루는 가죽 조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축구공은 정오각형 패널 12개와 정육각형 패널 20개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트리온다는 4개의 넓은 가죽 조각이 공을 감싸듯 결합돼 하나의 구형을 완성한다. 성종훈(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패널 수가 줄면서 구에 가까워지고 공의 궤적을 제어하기 수월해진다"고 전했다.

구에 가까워진 공은 표면 전체에 공기가 균일하게 흐르며 공기 저항 또한 일정하게 분산된다. 패널 수가 많아 이음새가 다수 발생할 경우 표면이 공기와 충돌하면서 흐름이 불규칙해진다. 공기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의 궤적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므로 공을 구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홍성찬(서울여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공 주위의 공기 흐름이 불규칙할 경우 공이 옆으로 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의 겉표면에 미세한 입체 돌기를 형성하는 디보싱 패턴도 적용됐다. 디보싱 패턴은 공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표면 처리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축구공은 매끄러운 코팅 재질로 이뤄져 있으나 트리온다는 디보싱 패턴을 통해 공의 비행 안정성을 높인다. 성 교수는 "디보싱 패턴은 공기 흐름이 공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점을 뒤로 늦춰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표면에 난 돌기가 어떻게 비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일까. 핵심은 공기 분자의 운동에너지를 높여 공기 흐름이 공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줄이는 데 있다. 공기가 공의 표면을 따라 끝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면 공 뒤쪽에 저압 영역이 형성된다. 이때 해당 영역을 채우기 위해 외부 공기가 불규칙하게 형성되고 공의 궤적 또한 흔들린다. 표면의 돌기는 공기 분자가 공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힘을 만든다. 김성민(국립공주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저압 영역에 공기가 불규칙하게 형성될 경우, 공 뒤쪽에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너클 현상' 일어난다"고 전했다.

트리온다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고도의 기술이 숨어있다. 트리온다의 내부에는 IMU 모션 센서 칩(이하 칩)이 탑재돼 있다. 칩은 공의 속도와 위치, 회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다. 축구에서는 골 라인 판독 등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판정이 중요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공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인간의 시각 구조상 밀리미터(mm) 단위 차이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워 공의 위치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칩 내부에는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센서가 내장돼 있다. 가속도 센서는 공의 직선 속도 변화를 측정해 이동 속도를 계산한다. 자이로 센서는 공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를 측정하며 공의 위치와 회전 상태를 분석한다. 지자기 센서는 지구 자기장을 기준으로 x·y·z축 방향 정보를 파악해 공의 공간상 위치 변화를 측정한다.

트리온다의 칩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돼 공의 위치와 선수 접촉 시점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칩이 공의 속도, 위치 정보를 데이터화한 후, 해당 데이터가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경기장 카메라로 공을 받는 선수의 위치를 계산하고 칩 데이터와 결합해 원활한 심판 판정을 돕는다. 성 교수는 "내부 센서의 데이터와 카메라의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공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리온다의 개발로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오심 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경기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경기 중단 또한 줄일 수 있다. 성 교수는 "스포츠 과학 기술은 경기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공인구뿐 아니라 웨어러블 센서 기술, 인공지능 기반 경기 분석 등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스포츠 산업에서는 선수의 움직임과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홍 교수는 "현재 스포츠 기업들이 기술을 이용해 선수들의 활동량과 피지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눈엣가시가 필요한 이유

처음 편집국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았을 때, 필자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걱정과 뜨거운 소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어느덧 퇴임이라는 마침표 앞에 서게 됐다. 필자가 편집국장으로 활동한 지난 1년 가슴속에 품었던 단 하나의 다짐은 본지가 대학사회 속 '청년의 시선'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점차 개인의 진로와 성과에 몰두하면서 대학 공동체를 둘러싼 담론도 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 침묵 속에서 <한성대신문>만큼은 대학사회의 질문들을 지면 위로 집요하게 끌어올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학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을 지면에 담았다. 본지가 주목한 ▲학생회 감사 경고 급증 ▲계약학과 학생 피해 ▲학내 배리어프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지금, 무거운 아쉬움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 의제를 넘어 주장이 치열하게 오가는 공론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제를 설정하려도 대학은 점차 질문을 기피하고 말을 숨기는 데에 열중했다. 대학본부와의 취재 과정에서 "왜 지꾸 물어보느냐", "예민한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일은 예사였다. 필자는 대학 자체가 대학언론을 그저 '눈엣가시'로 치부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하지만 대학언론은 본래 불편해야 마땅한 존재다. 통증이 몸을 괴롭히기 위함 아니라 이상 신호를 알리는 '방어

기제'이듯 말이다. 대학언론 역시 대학을 무작정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외면한 문제를 드러내고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을 전달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놓치고 있는 미세한 균열을 공론장 위로 알리는 것 자체가 학보사라는 존재의 본질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성과를 증명하고 수치를 남겨야 하는 상업적인 생존 경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학본부가 눈앞의 실적과 지표에만 몰두할수록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불편하더라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대학언론의 숙명이다. 대학본부 역시 이를 단순한 성가심이나 소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학언론의 질문에 직면하고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대학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시하는 진정한 소통의 시발점일 테다. 질문과 답변이 거세된 공간은 필연적으로 고이기 마련이며, 대학언론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침묵의 고착을 막는 데 있다. 대학본부가 대학언론의 필요성을 다시금 무게 있게 인지할 때, 대학과 언론의 건강한 동행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때로 누군가에게는 눈엣가시였을지언정,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던 학보사 기자로서의 여정을 마친다. 앞으로도 <한성대신문>이 던질 질문들에 본고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이승희 편집국장



캠퍼스 뒤에 가려진

지난 27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가' 대학의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교섭을 촉구했다. 대학에는 청소와 주차 관리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학내 시설 이용 제한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부당 대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하청업체를 내세워 원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의 협상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다. 학교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수적인 구성원이다. 대학은 마이크를 잡아오만 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 기자수첩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 게시물이 쏟아지는 시대지만 역설적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기 어려워졌다. 필자는 타인의 의견이나 순간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싶었다. 스스로의 생각을 명확한 언어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자 한성대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학보사에서 취재를 이어나가며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정보의 과잉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하나의 게시글이나 짧은 영상만으로 사회 현상을 판단하고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이전의 논의의 급세

넘쳐나는 목소리 사이에서

맞이곤 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와 논쟁이 쏟아졌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았다. 넘쳐나는 정보 속 정작 중요한 질문은 흐려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다.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와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청년 먹거리권'을 다룬 기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먹거리는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나머지 권리의 영역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을 겪는 청년들의 현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보였다. 문제 지적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미처 보지 못한 맥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독자 기사를 통해 현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가치와 질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학기부터 필자는 기자가 아닌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와 함께 사회를 이해하고 고민하는 신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의미와 맥락까지 함께 짚어내는 신문,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 독자 곁에서 세상을 함께 읽고 고민하는 진정한 한성대신문을 만들어가겠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 낙산에 올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들

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볼 때면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만 한 작은 화면 속으로 잠입해 있다. 그 심해의 적막 속에서 우리가 속도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며 왔는지를 문득 깨닫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돼 있다. 하지만 그 연결의 실체는 서늘한 전파의 진동일 뿐, 서로의 숨결과 온기가 머물지 않는 어디에도 없다. 타인의 삶은 화면 너머 화려한 선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정작 내 곁을 지나는 이의 고단한 어깨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오직 나의 온실만을 살피는 것이 생존의 마력이 돼버린 지금, 누군가를 향한 진심어

린 염려는 무용한 참견이 되고,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일은 가성비 낮은 감정 소모 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타인의 마음에 눈 맞춤하던 다정함은 아닐지. 상대방의 말간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그 안에 맺힌 슬픔을 읽어내고,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삶의 궤적을 "그럴 수도 있다"는 너른 품으로 안아주던 투박한 이해는 아닐지.

이제는 나를 보호하던 온실 벽을 스스로 깨트려야 할 때다. 그 벽 안에서 누리던 가짜 온기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가두고 있었음을 결국은 인정해야만 한다. 이 기주어라는 좁은 온실을 벗어나, 날카로운 외풍이 몰아치고 있는 타인이라는 광장 속

으로 가까이 걸어 나가자. 내가 먼저 건네는 작고 사소한 배려, "오늘도 수고했어"라며 읊조리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일 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삭막한 공기는 다시 온기를 띠기 시작할 테니까.

사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각자의 삶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존중해 주는 태도 정도일 뿐이다. 다시금 서로의 마음속에 다정한 은방울을 올려주자. 그 맑은소리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매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온전한 진심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아주 멀리 있지 않다. 타인을 향해 고개를 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돌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송윤선(사회과학 3)

기자사령

- | | | |
|---------------|---------------|-----------------|
| 임 | 정기자 조수현(인문 2) | 퇴 |
| 부장기자 김산(인문 2) | 김가현(사회과학 1) | 수습기자 송사무엘(인문 3) |
| | 김세현(상상력 1) | 이예준(사회과학 1) |
| | 황수민(상상력 1) | |
| | 유가은(문론 3) | |

동정란

- 정석순(예술학부 현대무용전공) 교수**
정 교수는 지난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지린대학교에서 '지린예술대학교 단기 외국인 교원 초빙-현대무용 마스터클래스' 특강을 진행했다.
- 이지인 (ICT디자인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사진갤러리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K-PHOTO 국제사진 공모'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의화정 K-패션, 브랜드보다 스타일로 소비되는 시대

최근 본고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원링크가 K-패션 글로벌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해외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 예상을 훌쩍 넘게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K-패션을 향한 세계의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실제로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K-패션 관련 해시태그 조회 수는 수십억 건을 넘어섰으며, 단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패션을 소개하는 숏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국내 패션산업은 마냥 낙관하기 어렵다. 내수 시장은 정체되고 온라인 플랫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 이

름 자체보다 'K-스타일'이 풍기는 분위기와 감성에 더욱 반응한다. 사람들은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경험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K-패션 역시 제조업을 넘어 문화 산업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됐다.

이 변화는 창업의 방식도 바꾸고 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앙트레프레너십'이 창조적 파괴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기업을 기존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는 혁신의 주체라고 설명한다. 지금의 K-패션 창업이 꼭 그렇다. 무신사는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결합해 패션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고, 젠틀몬스터는 안경보다 공간 경험과 브랜드 감성을 먼저 소비하게 만들며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과거 유명 브랜드를 따라 하거나 좋은 제품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오히려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감각, K-

컬처 경험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작은 브랜드라도 독창적인 스타일과 콘텐츠를 갖춘다면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패션산업 예비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디자인 역량은 기본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청년 세대에서도 브랜드의 역사보다 새로운 감각과 이야기,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K-패션의 다음 기회는 더 많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감할 스타일 경험을 설계하는 청년 창업가의 손에서 열릴 것이다.

정욱원(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상업화된 대학 축제, 사라진 우리들의 '대동'

대학 축제는 시대의 거울이다. '모두가 크게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아 '대동제(大同祭)'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학 축제는 학생 간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행사로 시대 속에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과도한 상업화, 획일화된 축제 활동 등으로 축제의 본질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6개 학보(고대신문, 광운대신문, 대학주보, 성대신문, 한대신문, 한성대신문)의 공동취재단은 대학 축제가 변화해 온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연합취재를 진행했다. 경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대학교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축제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대학 축제는 학생사회의 흐름과 함께 변모해 왔다. 1980년대 대학 축제는 민주화 운동과 결합하며 학생사회의 연대 의식을 드러내는 공동체 문화의 성격이 강했다. 당시 대학가는 마당극·민중가요 공연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유했다. 시국 토론회, 위령제 등을 열어 독재정권에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오제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1980년대 대동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변혁 열망이 담긴 투쟁의 의례였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소비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며 대학 축제의 성격 역시 변화했다.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서지 않았던 세대가 대학가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적 관심은 줄어들었다. 대신 대중문화가 발달하며 새로운 소비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이 형성됐다. 이에 오락에 초점을 둔 대학 축제가 대두됐다. 오 교수는 "사회 변화나 공동체에 대한 고민 대신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청년의 특징도 변화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학 축제의 모습에서는 '상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예인 공연과 주점 운영을 중심으로 기획되며 소비 중심의 행사로 재편되는 추세다. 학생들의 관심도 역시 소통과 화합의 기회보다는 연예인 공연 등 흥미를 끄는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학생 참여형 콘텐츠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 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창수(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축제의 운영 구조상 대학 축제가 공동체 의미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축제가 학생사회의 중심 사업으로 부상하며 예산 배분의 균형도 흔들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의 경우 올해 약 3억 5천만 원을 축제 예산으로 사용했고, 고려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각각 3억 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역대의 축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성대학교의 경우도 2026 학년도 상반기 총학생회 예산 중 약 98%에 달하는 금액인 4천만 원을 축제 예산으로 사용했다. 김창수 교수는 "대부분의 예산이 축제에 집중돼 학생 복지나 학과 프로그램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축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돈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회비와 교비가 사용되는 세부 항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예산 검증이 어렵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대학이 예산안에 단순히 '축제'

항목만 표기할 뿐 세부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양승훈(신라대학교 호텔외식관광경영학부) 교수는 "축제 회계는 섭외비, 외주비, 협찬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학교마다 공개 기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학 축제로 인해 대학생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학교 주변 도로와 주택가에 술병과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소음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상술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축제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쓰레기, 인파밀집 방지 등 열악한 환경 및 관리(43.17%)'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2023년, 건국대학교 축제제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서 촉발돼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논쟁이 일기도 했다.

연예인 섭외 여부가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을 평가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공연 중심 축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학 간 경쟁이 과열되며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한 압박이 커졌다는 의미다. 공동취재 결과, 학생들은 축제 활동 중 연예인 공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축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행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초청 연예인 공연(33.3%)'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축제 예산 편중의 원인에는 학생자치기구의 성과 중심 운영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에게 학사제도 개선이나 학생 복지 확대 사업은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는 단기간에 많은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학생자치기구가 축제 예산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김창수 교수는 "현재 대학 축제는 대학 문화의 다양성 보다는 얼마나 더 큰 소비형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의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부연했다.

대학 축제의 '외주화'가 심화되며 예산 집행 과정도 폐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학 축제는 대개 축제 대행업체가 연예인 섭외, 무대 설비 설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축제 기획의 주체가 돼야 할 총학생회가 대행업체에 운영 권한을 일임하며 종속된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와의 계약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학생들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띤다.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총학생회는 "무대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토론했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 갈등은 재학생에 한정된 폐쇄적 운영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주민·상권과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던 과거의 대학 축제와는 달리 현재는 재학생 존을 별도 운영하거나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사라졌다. 때문에 대학 축제가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강기명(성공회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도 와서 즐기는 공간이었

지만 지금은 외부인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축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축제 본질 회복을 위해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행업체와 연예인 공연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부스 콘텐츠 공모전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김창수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과 특성을 살린 콘텐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에 집중된 예산의 무게추를 다시 학생사회 전반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축제뿐만 아니라 학생 복지나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역시 학생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축제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고르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축제 예산을 줄인다면, 해당 재원을 어떤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에 '학생 생활 복지(46.3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축제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학생자치기구는 축제에 사용된 세부 예산 항목과 회계 처리 과정을 학생에게 투명히 공개하고 이를 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강기명 교수는 "대학 축제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총학생회를 견제할 수 있는 학내 대의원회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과거 대학 축제는 지역 주민·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행사로 기능하기도 했다. 총학생회 측과 지역 상권이 업무 협약을 맺거나 축제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교수는 "대학은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공간인 만큼 축제 역시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축제가 학생 간 교류와 자치 문화를 형성하며 학생 중심의 행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학 축제의 본질은 유명 연예인 초청 경쟁이 아니라 학생 간 소통과 화합을 끌어내는 데에 있다. 김강기명 교수는 "대학 축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를 기획하고 소통하는 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며 "연예인 중심의 상업성을 견어내고 학생 간 연대와 교류라는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1972년 고려대학교 석탑축전 씨름대회



▲연예인 공연에 환호하는 학생들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겠습니다

주소: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hansungnews@gmail.com



@hansungnews



@hansungnews